

20 C 前半期 韓國 絹織物의 類型과 特性

- 朱子織物과 撚織物을 中心으로 -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장 현 주 · 권 영 숙

目 次	
I. 序 言	IV. 結 語
II. 朱子織物	參考文獻
III. 撚織物	

I. 序 言

본 논문은 前報 “20世紀 前半期 韓國 平絹織物의 類型”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本報에서는 당시 많이 유통되었던 朱子織物과 撚織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종류별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前報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 C 前半期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환경요인이 다변화한 시대로서 밀려오는 외래문화적 요소와 함께 모든 면에서 과도기적인 변화를 겪었던 시대이며 織物생산 또한 종래 소규모의 가내수공업체제에서 공장제수공업의 체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직기술이 향상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수입개방으로 인한 外國產 織物의 유통은 이 시기 우리나라 衣生活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에 나타난 朱子織物과 撚織物은 平絹織物과 마찬가지로 유통된 직물의 대부분이 中國 英國 프랑스 日本產으로 1920년대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中國產이, 그 이후에는 日本產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平絹織物에 비해 제직 방법과 기술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종류와 명칭도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 織物에 관한 연구로는 김희정의 開化期 직물의 전반을 다룬 “開化期 織物에 관한 고찰”과

권태역의 綿織物을 중심으로 한 “韓國 近代의 綿業과 織物業”등 직물 전반에 대한 문헌 중심의 개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당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이들 絹織物에 대한 제직특성별 유형분류와 고찰을 시도한 논문은 드물다.

따라서 본 논문은 前報 “20世紀 前半期 韓國 平絹織物의 類型”에 이어 문헌적 고찰과 실물을 통한 실증적 고찰을 병행하여 이 시기 혼재되어 사용되었던 朱子織物과 撚織物의 類型과 特性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朱子織物

朱子織物은 그 조직이 朱子織으로 제직된 것으로 주로 緞으로 명명된다.

中國에서는 唐代에 처음으로 제직되어 서쪽으로는 인도 혹은 이란을 거쳐 시리아지방까지 전해졌으며 동쪽으로는 다마스쿠스지방에서 크게 발달하였고¹⁾ 우리나라에서의 緞은 다른 직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직되었지만²⁾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는 緞의 시대라 불리게 될 정도로 敎織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土產이 아니고 대부분이 中國產이며, 또 사치를 금한다는 금제항목에 항상 들어있는 점으로 미루

1) 寺田商太郎, やさしい織物の解説, (東京: 誠文堂, 昭和61年), p. 65

2) 高麗史 卷2 惠宗, 「又敎高麗國王 省所奏 進奉壽綵 社地金銀五色線織成日射龍鳳綵段二枚…」

어 보아 緞織物의 제직 기술이 독자적으로 크게 발달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20C 前半期에 있어서도 비교적 간단한 조직의 緞에 대한 제직은 계속 되었지만 국내에 유통되었던 대부분의 緞은 中國, 英國, 프랑스, 日本 등으로부터 輸入된 것이었다.

1. 緞

緞이 문헌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三十紵衫段이라는 기록이지만³⁾ 일반적으로 緞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高麗史에 나타난 紅地金銀五色線織成日月龍鳳襖緞인 것으로 알려진다.⁴⁾ 緞은 高麗후기로 갈수록 그 기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高麗시대 후기부터 사용되었으며 朝鮮시대 太宗 16년에 緞子織造色을 설치하여 緞을 제직했다는 기록⁵⁾과 紗羅綾緞의 직조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匠人 수백명을 두게 하고 人家에 傳習시키도록 한 생산령에 관한 기록⁶⁾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생산은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제직가능성에 관한 기록보다는 대부분의 緞직물이 우리나라 土産이 아니고 中國産이므로 사치를 금한다는 금제 항목에 항상 들었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緞직물 제직기술이 발달했다고는 볼 수 없다.

1984년 開港을 맞이하면서 西洋의 緞직물이 各色 各紋의 洋緞, 法緞이라는 명칭으로 輸入되어 들어왔으며 日本과 韓日合邦된 후 1924년 奢侈品 관세 실시로 인해 日本産 緞織物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므로 西洋, 日本, 中國産 등의 外國産 緞織물이 늘게 되었다.

또 20C 前半期에는 우리의 織物業이 대부분 가내공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노동집약적이고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즉 대량생산

이 쉽지 않은 緞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

1900년에 李仁基 등이 織機를 개량하여 緞을 생산하고, 漢城南西藝洞織造緞布株式會社에서도 緞을 생산했으며, 1906년에는 淳昌號와 美洞織造會社에서도 緞을 생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종류가 많이 늘게 되었다.

緞은 두껍고 광택있는 上品의 絹織物이며 미리 精練한 絹絲를 사용하여 朱子織으로 제직하며 조직에 따라서는 經緞, 緯緞, 5, 7, 8, 枚緞 등으로 분류되고, 무늬 제직방법에 따라서는 壯花緞, 暗花緞, 閃緞 등으로 분류되며 문양의 종류에 따른 각종 紋緞이 있었으며 이 시기에 보이는 緞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庫緞

清代의 貢物로 宮中の 府緞庫에 들어가는 것이며 宮中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란 뜻에서 명명된 것⁷⁾으로, 中國 清代 最上品의 비단 명칭이다. 무늬가 나타나지 않은 素庫緞은 貢緞⁸⁾이라고 하였으며, 무늬를 나타낸 紋庫緞은 模本緞⁹⁾이라고 하였다. 또 무늬와 바탕이 같은 단색이면 暗花緞, 무늬와 바탕이 다른 색이면 彩庫緞이라고 했다.

清代에는 8枚緞조직이 유행했는데 이 庫緞 역시 8枚緞조직이며, 經, 緯絲의 밀도가 130, 50/cm의 매우 촘촘한 것¹⁰⁾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가는 실로 제직하여 촘촘하며 또 經, 緯絲 밀도 차이로 보아 위사방향으로 橫敵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양은 보통 壽字, 福字, 모란, 연화무늬를 사용했으며 폭은 74~79cm로 광폭이 대부분이다.

純宗實錄 부록의 大斂衣褂에 五色庫緞片衣로 사용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원삼, 치마 등에 사용되었고, 여러가지의 紋庫緞과 各色의 庫緞이

3)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織物工藝篇),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p. 213.

4) 주 2 참조

5) 朝鮮王朝實錄 太宗 16年 5月 己亥, 「始置段子織造色…」

6)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1年 12月 辛未, 「傳曰 紗羅綾段 已許通着 而織造之方 不可不廣 自今加匠人數百 裨勤其業 令五部洞諭人家 以廣傳習…」

7) 羅竹風, 漢語大辭典, 高麗書林, p. 1232

8) 高漢玉 中國歷代織染繅圖錄, (商務印書館香港分館上海科學技術出版社合作出版: 1986) p. 18. / 中韓辭典, 高代民族文化研究所, p. 1283.

9) 羅竹風, 漢語大辭典, 高麗書林, p. 1232.

10) 高漢玉, 上揭書, p. 18.

있다.

2) 貢緞

清代에 官營織造로 생산되고 공물로 바쳐져서 國庫에 귀속되는 것이란 뜻에서 명명¹¹⁾된 것으로 中國 清代 最上品의 비단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洋緞에 대응하는 의미로 무늬가 없는 朱子織物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늬가 없는 素庫緞인 無紋緞 중에서 最上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貢緞은 대부분 표면에 經絲가 많이 나타나는 經朱子織이며, 8枚朱子織을 사용한 것이 많았다. 이 시기에는 대개 73~76cm의 광폭으로 제작되었으며, 촉감은 부드럽고 두꺼우며 광택이 있다.

高宗 喪時 小·大斂 衣褂에 杉, 袴, 褲, 圍衣, 襟護, 道袍, 鶴氅衣, 幅巾, 空頂帽 등에 모두 貢緞을 사용했으며, 여자 치마 저고리와 남자 바지 저고리에 널리 사용되었다.

3) 模本緞(摹本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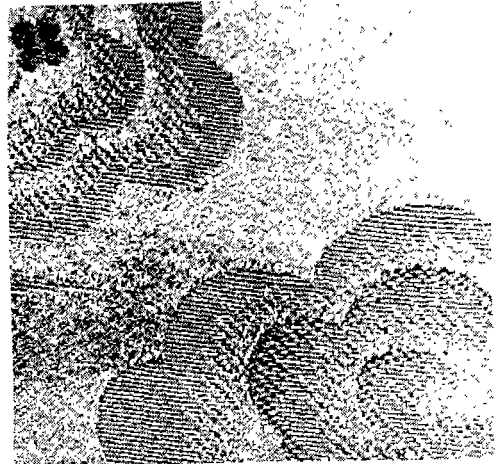
무늬가 실물과 같은 모양으로 모방하여 제작된 것이며,¹²⁾ 또 中國에서는 清代 國庫에 귀속되는 最上品의 비단인 무늬 있는 庫緞을 模本緞이라고 했다. 1894년 開港 이전에는 주로 中國製의 模本緞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1925년에는 中國의 模本緞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든 日本産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模本緞은 經, 緯絲 모두 撚絲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공장에 撚絲機가 필요했지만 당시 撚絲機는 주로 꼬임을 많이 주어야 하는 絹絲紡織工場과 人絹織物工場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模本緞의 제작이 어려워 1940년대 이전에는 거의가 輸入品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바탕은 8枚朱子織이며 무늬부분은 두둑조각으로 주로 제작하였고, 76cm내외의 광폭이며 품질이 곱고 윤이 나는 最上品의 고급직물이다. 문양은 주로 牡丹紋이 많으며 그의 花紋의 菊花紋, 蝙蝠紋, 吉祥語紋 등도 있었다.

模本緞은 王妃의 스란치마, 흥포, 王孫의 사군

삼, 조끼 등에 사용되었으며 純絹으로 된 것, 絹絲를 넣은 것, 綿을 넣은 것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사진 1]



[사진 1] 模本緞(권영숙교수소장, 1930-1940년대)

4) 洋緞

1876년 開港이 되면서 1905년 淸日전쟁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中國의 朱子織物 외에도 英國製 緞織物이 輸入되었다. 이 英國産 輸入品緞을 우리나라에서는 歐美品이라는 의미로 洋緞이라 불렀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洋緞이라고 하면 무늬가 있는 朱子織의 絹織物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금은 혼용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英國製 輸入品은 洋緞, 그외의 문양이 있는 緞織物은 紋緞이라고 불렀으며 이 紋緞은 대부분 中國製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最上의 高級品으로 무늬가 있는 朱子織이며, 처음 우리나라에 輸入되었을 때는 상류계급에 한해서 수요되었을 뿐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撚絲, 先染 가공기술의 어려움 등으로 洋緞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1943~1946년에는 朝鮮絹織에서 人絹織物 시설을 本絹비단 생산시설로 바꾸어 고급 本絹 洋緞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¹³⁾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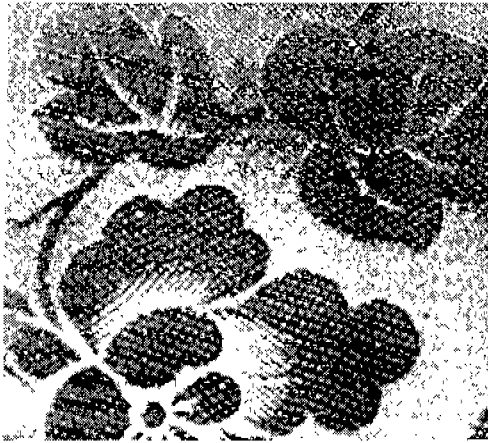
11) 高漢玉, 上揭書, p. 18.

12) 朝鮮, “內地に於ける 鮮人向絹織物の生産の就て(續)”, 1925년 126호, p. 33. 호 p. 33.

13) 金智泰會長 創業 45年史, p. 153.

바탕은 經朱子織이며, 무늬는 平織, 綾織, 緯朱子織, 二重織, 三重織 등으로 나타내는데 고찰된 실물은 모두 經朱子織의 바탕에 平織, 綾織, 緯朱

子織 등으로 무늬를 나타내었고, 문양은 여러가지 圓杉, 花草, 鶴, 文字, 石榴, 雲紋, 唐草, 牡丹, 壽宇의 변형문 등 다양하였다. [사진 2]



(실물크기)



(조직 10배 확대)

[사진 2] 洋緞(권영숙교수 소장, 1930-1940년대)

용도는 겨울철의 여자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남자의 마고자와 조끼, 이불감 등 의료로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사용된 原絲의 색수에 따라 單色緞, 三色緞, 五色緞, 七色緞 등이 있다.

5) 法 緞

1876년 概港이 되면서부터 프랑스産 絹織物도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法緞은 中國 朱子織에 대해 佛蘭西品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紋朱子織物이다. 日本에서 모방한 法緞은 1910년 국내에 들어왔으며 당시에는 中國製 緞이 우리나라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日本製 法緞의 수요량은 적었으나 1924년 奢侈品에 대한 관세법 실시 이후에는 그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¹⁴⁾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생산되었다¹⁵⁾고 한다.

經絲에 21denier 2올, 緯絲에 14denier 4~5올

¹⁶⁾을 미리 精練하여 염색한 후 朱子織으로 제작한 것으로 촉감은 매우 부드러우며 가벼운 經目織物에 속한다. 朱子織바탕에 문양은 단일색으로 표현하였고, 화초, 학, 富貴壽福의 글자문, 둥근 꽃무늬, 점무늬, 물방울무늬 등의 비교적 작은 무늬가 많다.

法緞은 겨울용 의복에 사용되었으며 絹綿 綾織의 經目に 속하는 紋朱子인 假法緞, 經, 緯絲 모두 本絹絲를 사용한 經目紋朱子인 色同法緞, 七色法緞 등의 종류가 있다.

6) 琥珀緞

얇은 琥珀緞은 taffeta라고 부르기도 하며 中國에서 日本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織物이다. 日本에서는 天和年間(1681~1684)에 처음으로 제작되었으며,¹⁷⁾ 1917~1918경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는 당시 상류층에서만 사용하는 고급품

14) 朝鮮 127호, p. 84.

15) 손혜원, “韓服地를 위한 紋織文樣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 1975년), p.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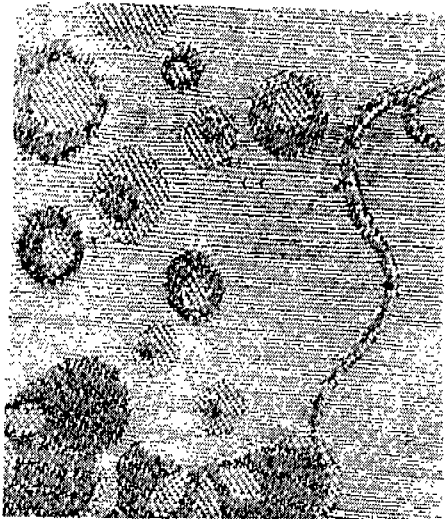
16) 朝鮮 127호, p. 85.

17) 皆川基, 絹の科學, (大板: 關西衣生活研究會: 1986) p. 364. / 北村哲郎, 日本の織物(東京: 原流社: 昭和 63년), p. 14.

이었지만 奢侈品에 대한 관세법 실시 이후 현저하게 그 수요량이 증가하였다.¹⁸⁾

국내에서는 1947년부터 朝鮮絹織 株式會社에서 琥珀緞이 대대적으로 생산되었으며, 특히 1947~1960년 경에 많이 생산되었다.

琥珀緞은 經絲에 練絹絲를 가늘고 조밀하게 배열하고, 緯絲에는 굵은 練絹絲를 배열하여 바탕을 平織으로 제직하여 바탕조직에 緯絲방향으로 뚜렷한 두둑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실증 고찰한 琥珀緞은 經絲의 밀도가 180/inch, 緯絲의 밀도가 72/inch로 나타났으며, 매우 가늘고 촘촘한 經絲의 사용으로 뚜렷한 횡무를 볼 수 있었다. 무늬는 經朱子織과 緯綾織을 사용하여, 원형과 꽃모양 등을 나타내었다. [사진 3] 폭은 68.6~72.7cm의 광폭이며, 두껍고 광택이 있어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다.



[사진 3] 琥珀緞(권영숙교수 소장, 1930-1940년대)

7) 朝絹緞

1946~1947에 부산 朝鮮絹織 株式會社에서 琥珀緞과 함께 생산한 것으로 朝鮮絹織의 이름을 딴 것이다. 琥珀緞과 비슷하지만 이것보다는 두껍고 고급직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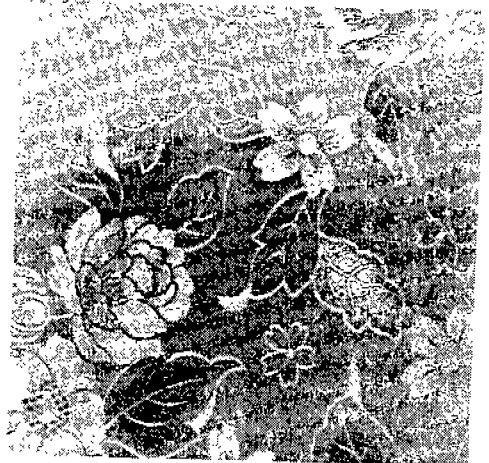
초기에는 국당초를 바탕무늬로 하여 원형을 만

들어 그 속에 꽃을 배치했는데 이 시기에 인기가 있었다. 검은색 바탕에 남색무늬의 것이 유행했으며, 겨울용으로 사용되었다.

8) 뉴텐

朝鮮絹織에서 1943-1946년에 本絹 뉴텐을 생산하게 되면서, 日本에서 密輸入되어 들어오던 것을 막게 되었으며,¹⁹⁾ 또 1946-1947년에는 강화 朝陽織物에서 뉴텐을 생산하게 되었다.

실증고찰한 뉴텐은 經絲에 보통의 無撚絲, 緯絲에 強撚絲인 縮緬絲를 사용하여 바탕은 平織으로, 무늬는 經朱子織으로 제직하였으며 사용된 문양은 꽃무늬이다. [사진 4]



[사진 4] 뉴텐(필자소장, 1940년대)

本絹 뉴텐은 표면이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고 이른 봄이나 겨울철의 여자 치마, 저고리, 속치마, 속바지, 침구류감에 널리 사용되었다.

9) 紋緞

무늬가 있는 朱子絹織物의 총칭으로 한가지 문양만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문양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보통 사용된 문양 다음에 紋緞이라고 하여 이름이 정해졌다.

18) 朝鮮 127호, p. 93.

19) 이문수, 金智泰會長 創業45年史, 이우인쇄사, 1978,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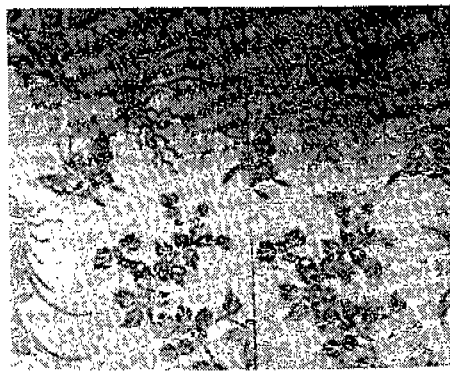
紋緞은 實錄에 몇 차례의 禁斷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류층의 고급織物임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의 대부분은 中國産이었으며 국내에서도 생산했다.

보통 朱子織 바탕에, 문양은 綾織으로 제작한



[사진 5] 桃榴壽福紋緞(服飾類名品圖錄)

것이 많았고 사용된 문양은 牡丹, 唐草, 寶相花, 梅花, 蘭草, 菊花, 竹, 蓮花, 不老草, 花, 槿花 등의 식물문, 桃, 榴, 佛手, 瓢, 葫蘆, 葡萄 등의 과일문, 松, 樹木 등의 수목문, 雲寶 등의 천지운기문, 鶴, 龍, 鳳, 蝙蝠, 蝶 등의 동물문, 壽, 福 등의 문자모



[사진 6] 蘭蝶紋緞(李朝末期王室服飾)

양이다.

[사진 5]의 桃榴紋緞은 석류문과 복숭아문양이 있는 것으로 英親王이 14세에 日本으로 떠날 때 內人들에게 하사한 衣褂 받기 중 唐衣감으로 초록 桃榴紋緞이 들어 있으며,²⁰⁾ 桃榴緞은 주로 宮中에서 妃嬪들의 치마, 저고리, 당의에 널리 사용된 고급 비단이다. [사진 6]의 蘭蝶紋緞은 식물문양과 동물문양이 함께 사용된 것이다.

Ⅲ. 撚織物

撚織物은 經絲가 서로 평행하지 않고 撚經絲와 地經絲가 1조가 되어 서로 교차하는 織物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紗織物과 縞織物의 2가지가 있다.

撚織物은 上代부터 발달하였으며 이때에는 2經紋組織 뿐만 아니라 3經紋組織과 4經紋組織도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20C 前半期에는 2經紋組織의 正紗織과 縞織만이 보이며, 오늘날의 變化紗織과 縞織에 속하는 3, 4經紋組織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쇠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양문물의 도입과 함께 輸入絹織物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유통되었던 撚織物은 제작방법에 따라 종류와 명칭이 다양하다.

撚織物에는 紗와 羅가 있으며, 이 시기에는 紗의 명칭이 다양하게 보이는 데 비해 杭羅외에는 羅織物이 보이지 않는다.

1. 紗

紗字는 絲와 少가 합쳐진 會意문자로서 실이 적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靑草에서 유래한 沙라는 문자에서 轉化한 것²¹⁾이라도도 한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紗는 성기고 가볍고 얇은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소폭의 紗가 가내수공업적으로 제작되었으며 1900년에 설립된 淳昌號에서 紗를 제작하였으며 緞과 마찬가지로 中國産 日本産 등의 外國産 紗織物이 들어와서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紗織物이 나타났다.

朝鮮時代부터는 2經紋羅와 紗간에 혼돈이 생겨 2經紋羅 직물은 紗에 흡수된 듯 杭羅 종류 외에는

20) 金英淑, 韓國服飾史辭典, (서울: 民文庫: 1988) p. 199.

21) 高漢玉, 上揭書, p. 14.

명칭을 찾아 볼 수 없는데 비해 紗의 명칭은 甲紗, 生庫紗, 眞珠紗, 각종 紋紗 등 다양하게 보인다.

또 上代에는 성근 平織으로 제작한 것을 紗라고 하였으며, 宋代에는 2올의 經絲를 꼬은 오늘날의 正紗織과 같은 紋經조직으로 제작한 織物을 紗라고 하여 平織과 紗織은 혼용되어 왔으며 20C 前半期 우리나라에서도 紗는 紗織과 平織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바탕이 平織으로 제작되었으면서 紗라고 명명한 것은 이미 平織物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紗織으로 제작된 紗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보이는 紗織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甲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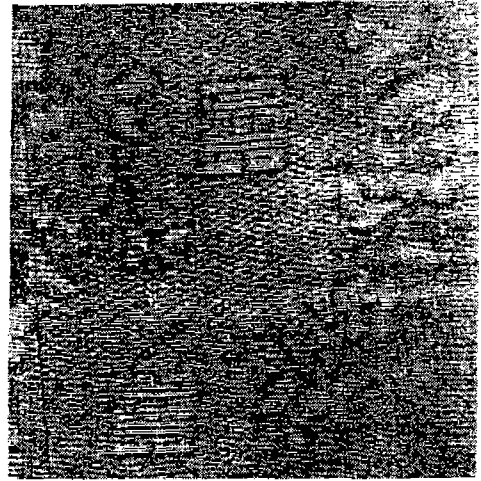
甲紗는 거북의 등껍질과 같은 외관을 가진 縹織物이다.

正祖 20년(1796) 3월에 軍門의 將校들이 軍服을 만드는데 大緞과 甲紗를 합부로 쓰기 때문에 苧布 3升의 等屬으로 만들게 했다는 기록²²⁾과 純宗實錄 부록 1919년 1월 26-27일에 보이는 大斂衣褂 중 白甲紗衫, 白甲紗裳이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품질이 우수한 고급의 紗織物임을 알 수 있다. 20C 前半期 국내에서도 생산하였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色과 紋樣으로 제작되고 있다. 經, 緯絲 모두 生絲를 사용한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히 熟絲를 사용한 熟甲紗도 있다.

실증 고찰한 甲紗는 바탕이 紗織으로 비늘같은 외관을 형성하며, 그 위에 무늬를 平織 또는 紗織으로 나타낸 것으로 壽字와 花紋이 사용되었다. [사진 7]

그 외에 많이 사용된 문양은 蝶, 花, 雲, 壽字, 표주박, 龍紋, 福, 雲鶴, 龍, 鳳, 梅, 蘭, 卍字, 七寶 등이며, 종류는 무늬에 따른 각종 紋甲紗와 生, 熟, 生垂, 熟垂甲紗의 종류와 무늬가 없는 甲紗인 無紋甲紗 즉 純仁도 있다.

주로 여름용 의류에 사용되었으며, 王의 冕服과 朝服, 妃嬪의 스란 대란치마, 王世子の 둥다리, 용포, 쾌자, 주의, 배자, 衫, 치마, 저고리, 바지, 복



[사진 7] 甲紗(필자소장, 1940년대)

건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2) 純仁(純麟)

甲紗 중 무늬없는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中國에서는 옛날 親王用으로 親王府에서 거두어 들었기 때문에 府紗라고 불렀다.²³⁾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純仁 혹은 純麟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고급의 紗로 순수하게 비늘껍질과 같은 甲紗 바탕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겉, 안감 2장이 서로 겹치면 모아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織物의 특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純仁이 제작되었고 1924년경에는 日本産 純仁도 들어왔다.

제작방법은 經絲에 生絲, 緯絲에 練絲를 사용하여 平織의 혼합조직인 變化紗織이었으며 한 필의 길이는 13.7m, 폭은 63.6cm, 중량은 562.5~600g으로 重目織物이었다.²⁴⁾ 王의 두루마기와 두루마기 안감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옥색, 연두색, 백색 등 연한 색이 대부분이다.

3) 庫紗

中國의 품질이 우수한 絹織物의 한 종류이며, 庫紗라는 원래의 의미는 清代의 貢品으로 궁중의 수요로 朝廷의 장고에 거두어 들이는 것²⁵⁾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庫紗는 본래 中國 명칭이 그대

22) 增補文獻備考 章服二 正祖 20年 3月, 「以軍門將校 軍服濫用大緞甲紗令以苧布三升等屬造服…」

23) 朝鮮 126호, p. 33.

24) 朝鮮 127호, p. 127.

25) 羅竹風, 漢語大辭典, 高麗書林, p. 97.

로 사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中國의 품질이 우수한 庫紗를 輸入하기도 하였으며 日本에서도 1924년경부터 中國의 庫紗를 모방하여 제직하였는데 이것을 輸入하기도 하였다.

庫紗는 삶아 익힌 명주실로 제직한 熟庫紗와 生絲 그대로 사용하여 제직한 生庫紗가 있다.

熟庫紗는 經, 緯絲 모두 熟絲를 사용하는데 緯絲에만 生絲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실중 고찰한 결과 바탕은 平織이고, 무늬는 紗織으로 圓形壽字, 표주박 무늬 등을 나타내었다. 밀도는 經絲가 88~104/inch, 緯絲가 40~64/inch이며 이것은 저고리, 마고자, 속바지에 사용되었다. 이외에 문헌기록으로 보아 王妃의 반회장저고리, 王世子의 풍차바지, 까치두루마기, 쾌자, 치마, 속고의 등 춘추용 옷감으로 널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生庫紗는 經, 緯絲 모두 生絲를 사용하며 熟庫紗와는 반대로 바닥조직은 紗織이며 무늬가 平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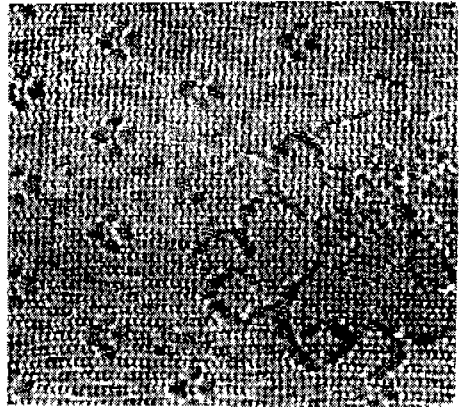
무늬는 平織의 작은 무늬가 고루 흩어져 있으며 熟庫紗보다 비쳐 보이고 광택도 있다. 문헌기록으로 보아 원삼, 저고리, 속옷류 등 여름 의류에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4) 眞珠紗(珍珠紗)

眞珠紗는 珍珠를 이은 듯한 외관을 가지는 撚織²⁶⁾의 한 종류이며 마름모꼴의 연속적인 菱花紋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는 中國의 眞珠紗가 국내에 많이 들어왔으며 1922년부터는 한 필의 길이가 13.72m, 폭이 68.6cm, 중량이 656.3g²⁷⁾의 重目織物에 속하는 日本産 眞珠紗도 들어 왔다. 1924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했다고 한다.

실물의 眞珠紗는 經, 緯絲 모두 生絲이며 緯絲의 2~3배 정도 굵은 실을 사용하였으며 바탕은 紗織이고, 무늬는 平織의 菱花紋과 5매 緯朱子織의 花紋이 함께 나타난다. 경사의 밀도는 88~96/inch, 위사는 44~56/inch로 경사가 위사의 거의 2배이며 이것은 여자저고리, 남아저고



[사진 8] 眞珠紗(권영숙교수 소장, 1930-1940년대)

리, 단속곳에 사용된 것이다. [사진 8]

그외에도 王의 마고자, 王妃의 홑속치마, 王孫의 두루마기 등에 사용된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5) 紫微紗

紫微紗는 20C 前半期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한 것으로 실물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緯絲에는 經絲의 2~3배 굵기의 실을 사용하여 바탕조직은 平織으로 하고, 무늬 부분은 5매 緯朱子織과 緯綾織을 함께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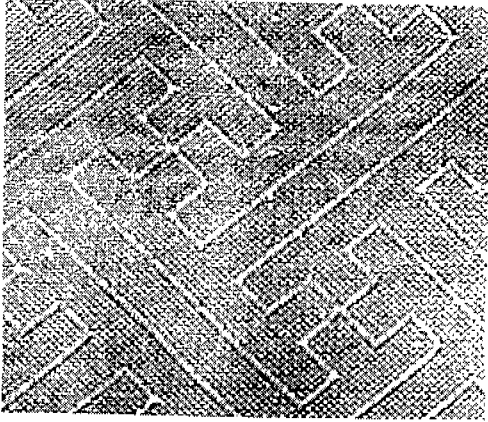
밀도는 대개 經絲가 96~120/inch, 緯絲가 80~104/inch이며 무늬는 주로 卍字紋이 대부분이지만 [사진 9] 이외에도 壽의 변형, 표호문, 花紋, 唐草紋, 牧徽紋, 菊花紋 등이 다양하게 섞여서 나타난 것도 있다. [사진 10]

흰색, 분홍색, 연한 옥색, 송화색, 미색, 소색 등이 많으며 4, 5월 춘추용으로 남아저고리, 여자저고리, 마고자 등에 사용되었고 또 솜을 두어서 겨울용 솜바지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표면은 매우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뛰어났다.

6) 銀條紗

銀條紗는 中國에서 나는 무늬없는 絹織物의 한 가지로 銀이란 이 직물의 빛깔과 광택을 표현한

2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織物工藝篇), 上揭書, p. 104.
27) 朝鮮 127호, p. 98.



[사진 9] 紫微紗(권영숙교수 소장, 1930-1940년대)



[사진 10] 紫微紗(필자소장, 1930-1940년대)

것²⁸⁾으로 銀과 같은 빛깔과 광택을 가졌기 때문에 명명된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 中國 絹織이었는데 국내에 들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었다. 또 日本에서 생산한 것도 들어와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色으로 곱게 염색되어 사용되고 있다.

銀條紗는 經, 緯絲 모두 生絲를 혹은 緯絲에 練絲를 사용하여 무늬없이 紗織으로 제직하는데 갈갈한 촉감을 가지고 비쳐 보이며 안과 밖으로 겹쳐 2겹으로 사용하면 아롱지고 물결같은 어른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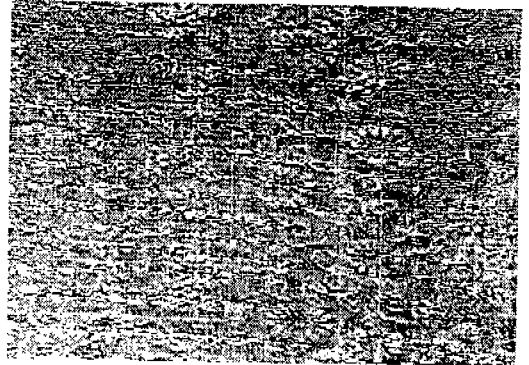
문헌을 통해 周衣, 껌자, 치마, 여자의 개끼저고리, 물겹저고리, 바지, 한복안감 등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紋 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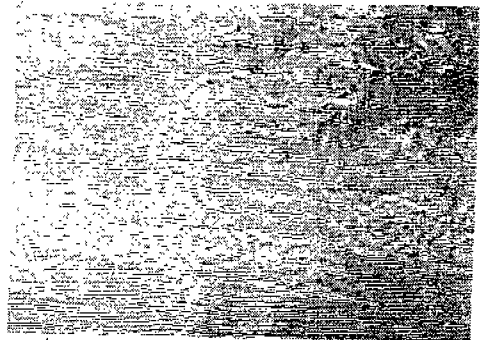
紋紗는 무늬가 있는 紗종류의 총칭으로 한가지 문양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과 2~3개 문양을 서로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으며 사용된 문양에 따라 명칭이 정해졌다. 紋紗를 紋緞과 함께 혼례 의료용으로 금지한 것으로 보아 화려하고 사치한 옷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經, 緯絲 모두 生絲를 사용하여 바탕은 平織으로, 무늬는 紗織 혹은 二重織 등으로 제직하였고 사용된 문양은 牡丹, 唐草, 寶相花, 梅花, 蘭草, 菊花, 竹, 蓮花, 不老草, 花, 槿花 등의 식물문, 桃,

榴, 拂手, 瓢, 葫蘆, 葡萄 등의 과일문, 松, 樹木 등의 수목문, 雲, 寶 등의 천지운기문, 鶴, 龍, 鳳, 蝙蝠, 蝶 등의 동물문, 壽, 福 등의 문자문양이다. [사진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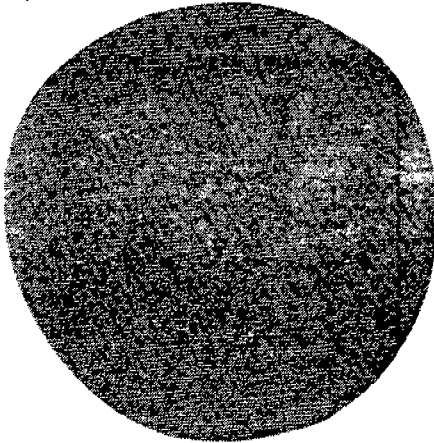


[사진 11] 菊花紋紗(服飾類名品圖錄)



[사진 12] 如意雲紋紗(服飾類名品圖錄)

28) 朝鮮 126호, p. 32.



[사진 13] 龍補紋紗(服飾類名品圖錄)

포의 홍룡포를 비롯한 조끼, 전복, 원삼, 전행릿치마, 반희장저고리, 대란치마, 홀전복, 의복의 안감 등 주로 의례복의 고급의료에 사용되었다.

8) 廣 紗

「國婚定禮」에 혼례 경비 절감을 위해 紋紗로 대용하고 紫綾褥는 吐紬로 대용한 것으로 보아²⁹⁾ 廣紗는 紋紗에 비해 소박한 의료로 생각된다.

經, 緯絲 모두 熟絲를 사용하여 바탕은 平織, 무늬는 紗織으로 제작하였으며 여자 치마, 적삼, 당적삼 등에 사용되었다.

2. 羅

羅는 「釋名」³⁰⁾과 「一節經音義」³¹⁾에 조직이 그물처럼 성긴 것이라 하였으며 대체로 가볍고 얇으며 성근 투공 絹織物이다. 絞經조직의 복잡한 그물형태(網狀)로 제작된 織物이다.

羅는 經絲 울 수에 따라 2經絞羅, 3經絞羅, 4經絞羅조직이 있으며 우리나라 上代부터 高麗시대에 이르기 까지 의료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

나 朝鮮시대에 이르러서는 3經, 4經과 같은 비교적 복잡한 絞羅조직은 쇠퇴하고, 2經絞羅조직도 대부분 紗에 흡수되고 杭羅조직만 남게 되었다.

무늬의 유무에 따라 素羅와 花羅로 구분하고, 사용재료에 따라 熟杭羅, 苧杭羅, 紬杭羅, 生杭羅, 木杭羅, 毛羅로 구분되고, 產地에 따라 安州杭羅, 唐杭羅, 閩州杭羅 등의 종류가 있으며, 또 색에 따라 各色羅가 있다.

1) 杭羅(抗羅, 亢羅)

杭羅는 抗羅, 亢羅라고도 표기하며 원산지인 杭羅의 이름을 딴 것이다.³²⁾

명주실, 무명실, 모시실을 각각 사용하여 平織과 紗織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합하여 가로선이 나타나는 紹織으로 제작하는데, 이때 平織부분의 緯絲 울수에 따라 3, 5, 7, 9, 11, 5·1, 5·3, 7·1, 9·1월러 등의 平紹라고 한다.

中國에서는 2經絞羅組織 중 가로줄무늬 효과가 분명한 것을 橫羅 즉 3梭羅, 5梭羅, 7梭羅라고 하였는데³³⁾ 여기서 橫羅라고 하던 것은 오늘날의 杭羅조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春秋 戰國시대의 湖北 江陵馬山 1호 楚墓에서 출토된 羅織物 중에는 2經絞3緯의 3梭羅 즉 지금의 3월러 조직의 杭羅가 출토되었다³⁴⁾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미 2500여년 전에 2經絞 조직의 杭羅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랑지방 유적에서 마름모꼴 무늬가 있는 紹織이 발견되었고, 1966년 불국사의 석가탑에서도 많은 紹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소폭의 紹織이 제작되었으며, 실물중에도 9월러, 11월러 등의 紹織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진 14는 3월러와 5월러이며 이것의 밀도는 經絲가 80~88/inch, 緯絲가 88~104/inch로 나타났으며 매우 가볍고 얇은 투공직물로 여름용 의료

29) 國婚定例 凡例, 「紋紗以光紗代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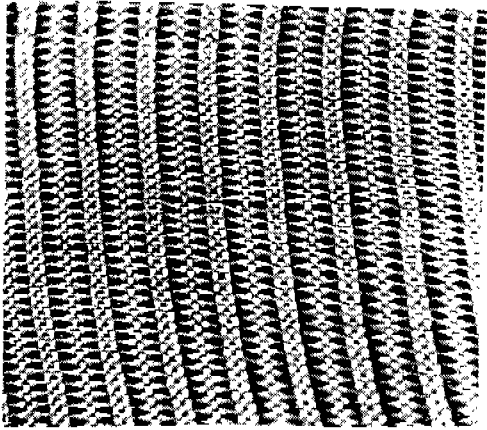
30) 釋名 卷4 釋彩帛, 「羅紋疏羅羅地」

31) 一節經音義, 「烏綱日羅」

32) 朝鮮 126호, p. 32

33) 高漢玉, 上揭書, p. 15.

34) 高漢玉, 上揭書, p. 15.



(실물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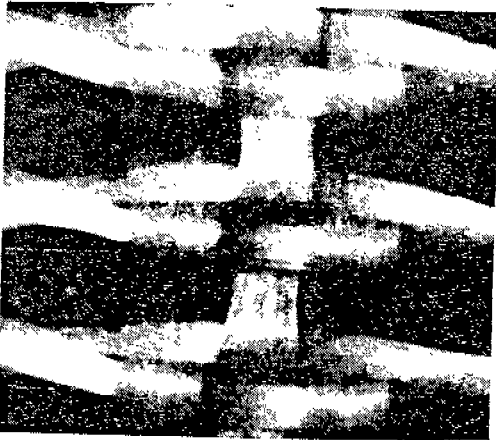
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실물은 남아 저고리와 바지에 사용되었는데 이외에도 여자 저고리, 치마, 남자저고리, 바지, 배자, 두루마기 등에 널리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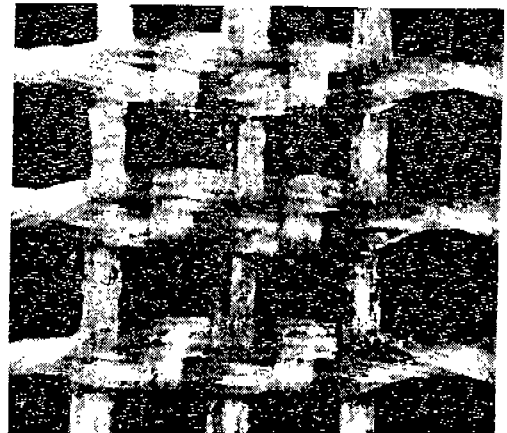
사용재료에 따라 熟杭羅, 生杭羅, 苧杭羅, 紬杭羅, 木杭羅라고 하고, 그 產地에 따라 安州杭羅, 唐杭羅, 閔州羅, 各色的 杭羅와 마름모, 지그재그, 화초 등의 무늬가 있는 紋杭羅의 종류가 있다.

2) 紋杭羅

紋杭羅는 杭羅 組織 중 무늬가 있는 것으로 杭羅 중에서도 고급에 속한다. 실증고찰한 결과 杭羅는 보통 3, 5, 7월려 등으로 제작한 것이 많은데 紋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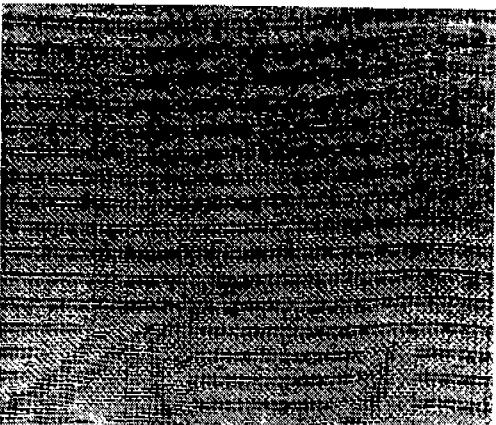


(3월려조직, 10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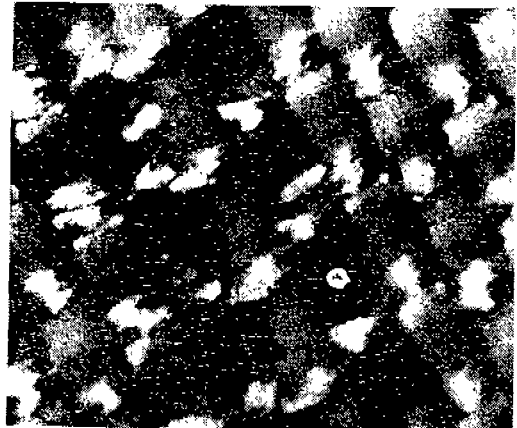


(5월려 조직, 10배 확대)

[사진 14] 杭羅(권영숙 교수 소장, 1930-1940년대)



(실물크기)



(5·1평여조직, 10배 확대)

[사진 15] 紋杭羅조직(권영숙교수 소장, 1930-1940년대)

羅의 조직은 杭羅와 달리 바탕조직을 5·1, 7·1, 9·1평여 등으로 하고, 무늬부분을 紗織으로 나타내었다. [사진 15]

이것은 經絲의 밀도가 88~104/inch, 緯絲의 밀도가 52~80/inch로 나타났으며 남아 저고리, 여자 저고리, 치마, 속치마, 저고리 등정부분 등 주로 여름용 의료로 사용되었다.

3) 唐杭羅

中國에서는 中國 원산지인 杭州의 이름을 딴 것으로 간단히 杭羅라고 칭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中國 杭羅라는 의미에서 唐杭羅라고 불렀으며 실이 깨끗하고 색이 흰것이 특징이다.

經, 緯絲 모두 生絲를 사용하므로 生杭羅라고 하기도 했으며 3월려, 5월려, 7월려의 絹織으로 제작하며 여름용으로 풀을 먹여 곱슬로 바느질하여 사용했다.

4) 기타

염색한 杭羅인 色杭羅, 經絲에 生絲 緯絲에 苧絲 2本 生絲 2本을 교대로 織入한 蟬羅³⁵⁾, 中國山銀銀緞의 약칭인 銀羅³⁶⁾, 三八紬와 비슷하면서 曲生絹무늬와 비슷한 秋羅, 얇으며 판모류의 재료로 주로 사용된 질이 낮은 冒羅³⁷⁾, 乙羅 등이 있다.

IV. 結 言

이상 20C 前半期 우리나라 朱子織物과 搦織物에 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朱子織物에 속하는 것으로는 緞이 있으며 이것은 이 시기 대부분 8매단의 經緞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늬가 없는 素庫緞인 貢緞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늬가 있었다.

또 이 시기에 보이는 緞의 명칭은 비교적 中國의인 명칭이 많은 특징이며 같은 직물명이더라도 中國產 英國產 프랑스產 日本產등 다양한 것도 또한 특징이다. 이시기 국내에는 간단한 조직의 緞 외에는 거의 대부분 외국산 紋織緞이 의료로 많이

통용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中國產 緞을 많이 사용하였고, 1984년 開港이 되면서 서양의 緞織物이 洋緞, 法緞이라는 명칭으로 輸入되어 들어왔으며 1910년 韓日合邦이 되면서 1924년 日本의 奢侈品에 대한 관세법 실시 후에는 日本產 緞도 대량으로 輸入되었다.

둘째, 搦織物에는 紗와 羅가 있으며 이 시기에는 2經紋羅와 紗간에 혼돈이 생겨 2經紋羅는 紗에 흡수되고 羅조직으로는 杭羅조직만 남아있는데 비해 紗 종류는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이 시기 紗는 바탕 또는 무늬부분을 紗織으로 제작하여 성기고 투공성이 있는 것으로 주로 여름용의 고급의료로 사용되었으며 緞과 마찬가지로 中國產, 日本產 紗가 많이 輸入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보인다.

또 이시기 羅는 3, 4經紋羅가 쇠퇴한 듯 보이지 않고, 2經紋羅 조직은 대부분 紗에 흡수된 듯 杭羅 종류외에는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杭羅는 3, 5, 7, 9, 11월려 등 다양하게 보이며 紋杭羅는 바탕조직을 3·1, 5·1, 7·1, 9·1, 11·1平紹 등으로 하고 무늬 부분조직은 紗織으로 제작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여름용 의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參考文獻

1. 經國大典
2. 高麗圖經
3. 高麗史
3. 三國史記
4. 釋名
5. 後漢書
6. 服飾類名品圖錄(10), (서울: 고려대학교박물관: 1990)
7.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查報告書, (은양민속박물관: 1989)
8. 朝鮮産業年報, (서울: 民俗苑: 1991)
9.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은양민속박물관: 은양민속박물관: 1991)

35)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上揭書, p. 104.

36)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上揭書, p. 108.

37) 金英淑, 韓國服飾史辭典, (서울: 民文庫: 1988), p. 191.

10. 吳淑生·田自彙, 中國染織史, (上海人民出版社: 1986)
11. 周石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
12. 廣漢和辭典 下, 諸橋轍次 鎌田正 米山寅太郎, 大修館書店
13. 寺田商太郎, やさしい織物の解説, (東京: 織維研究社: 昭和61년)
14. 日本纖維工業教育研究會 足立達雄외 8人, 纖維工學Ⅱ 織物, (東京: 實教出版株式會社)
15. 佐藤武敏, 中國古代絹織物史研究 上·下, (東京: 風間書房: 昭和53년)
16. 川島織物研究報告 第2執, 日本上代織技の研究, (京都: 川島織物研究所: 昭和26년)
17. 권영숙, “韓國 絹織物の 역사와 흐름”, 한국의류학회지(부산경남지부) 제 6권 1호, 1992
18. 권태익, “韓國 近代의 綿業과 織物業”,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국사학과, 1988
19. 김희정, “개화기 직물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1986
20. 민길자, “韓國傳統織物の 섬유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 1987
21. 민길자, “織物の 종류에 관한 연구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교육논총 제6집 별책, 국민대 교육연구소, 1986
22. 조효숙, “高麗시대의 絹織物과 그 제직에 관한 연구”, 服飾 15호
23. 朝鮮, “內地に 於ける 鮮人向絹織物の生産の就で, 1925년 125호
24. 朝鮮, “內地に 於ける 鮮人向絹織物の生産の就で(讀), 1925년 126호
25. 朝鮮, “內地に 於ける 鮮人向絹織物の生産の就で(讀), 1925년 127호
26. 朝鮮織物協會志, “朝鮮의 繭絲業と絹織物”, 1940년 1월 1일
27. 文物, 1977년 7기

A Study on shape and special quality of Korea Silk Fabrics of the first half year of 20 Century -
-in terms of the satin fabrics and gauze and leno fabrics-

Jang Hyun Joo(장현주) · Kwon Young Suk(권영숙)